



Global Partners. 이 영대, 전 애림 선교사 (Brazil).

21년 12월

미주본부 1-714-774-9191, 파송 교회 714-772-7777

Brasil:11-55-11-9-7394-3534. E-mail: ydleeabrako@gmail.com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드릴 기도 제목이 적어 진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차 있기 때문에 더 간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감사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날에 받은 은혜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일어난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받고 깨달은 것을 감사하는 기록을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5개, 10개로 증가되면서 점차로 간구 기도 제목들이 사라졌다고 했다. (살전 5:16~18, 롬 8:28) 이처럼 삶의 모습이 바뀌면 대인 관계에 통찰력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녀들에게 매일 감사한 일을 5가지 이상 기록하라’고 했더니 정서적, 지적, 영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자녀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에 도전을 받은 나도 감사 일기를 매일 기록해야 하겠다. 매일 한 가지씩, 한 줄이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시작하면 그 분처럼 삶이 바뀌게 될 것이다. 막연하게 기록하기 보다 구체적 사실들을 기록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기록이 갈수록 많아지는 자로 영적 무장이 되어야 하겠다.

무엇 보다 감사하고 반가운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전립선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9 주간, 45번 받았는데, PCA 수치가 작년 말에 0.6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0.0이었고, 이번 12월도 0.0이 되어 ‘완치될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 은혜(건강해야 되겠다는 의지, 열심을 베푸셔서 매일 1만보 목표로 걷기 운동을 비롯하여 제 자리 뽀뽀기 운동, 금붕어 운동, 냉수 마찰)로 깨닫게 되면서 건강한 몸으로 사역이 가능해져 사람의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 감사하고 기쁜 것은 저의 3 딸들이 가사 도우미 없이 집안 일, 직장 일들로 분주하지만, 매주일 오후에 저의 선교 사역을 위한 ‘가족 정기 기도회’를 계속(간혹 건너 뛰는 때도 있음)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흠어져 지내고 있지만, 저희 부부와 함께 기도 시간에 ZOOM으로 서로의 안부도 물으며 기도 제목도 나눈 후, 저의 브라질 사역을 비롯해 Africa 신학교 및 MK 사역에 열매가 풍성하도록 길게 2시간, 짧게는 1시간 기도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사랑을 소원합니다.

Africa, 신학교, 제 6회 졸업 예배가 내년, 2,022년 2월 12일에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졸업 예정자가 21명인데, 이들은 목회자들로, 선교사, 교회 직분자로 섬길 예정인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졸업한 101명과 합하면 이제 122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선교 지향적’ 교회로 세우며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교회 숫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Africa 신학교 강의를 위하여 브라질에서 Olivio 목사(교육학-교회 지도자론)가 저와 함께 다가오는 2월 초에 현지에 도착하여 졸업식 설교, 신학교 강의, 현지 교회 방문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예정인데 열매가 있도록 기도를 바라고, 특별한 제목은 ‘비행기 요금도 적당하고, 시간 절약을 위하여 Morocco 항공 회사가 브라질과 현지에 취항(코로나 질병 발생 후부터 약 2년간 취항 중단 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풀투갈 항공사를 이용하는데, 요금과 시간에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드려 주실 제목은 상파울 신학교 재학생 1명이 Africa에서 선교사로 일할 목적으로 작년 10월에 Africa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현지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제는 현지로 출발할 준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현지에서 제빵 공장(상파울 모 한인 교회 장로가 설립을 추진 중) 책임자로 사역할 예정이지만, 저의 계획은 학교들(신학교, MK 학교) 사무 총괄 책임자로 맡기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 신학교 재학생 1명(간호대학 졸업, 현직

간호사)도 Senegal(현지 보건소) 혹은 Bissau(국립 병원)에서 선교사로 일하려고 준비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frica, MK 학교 건축은 현재 '약 70%'로 준공 단계'에 있는데 제가 지난 10월에 현지에 있을 때에 지붕 공사가 완료되는 것을 보고 브라질로 귀임했는데, 공사 감독은 앞으로 미화 약 10만 불이면 완공된다 했지만, 그 동안 공사로 지금은 약 5만불이면 완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완공까지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공되면 영어, 불어 교사를 미국, 한국에서 초빙해 국제 학교다운 모습으로 성장되면서 현지에 널리 퍼져있는 부정 부패(신학교 공사 기간 중, 현 정부에서 파견된 공사 감독자가 뇌물을 요청함-이것을 물리 친다고 제가 많은 애를 씌)를 몰아내고 국가에 기둥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라질, IBR 신학교 본교가 내년, 1월부터 새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재학생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직업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 지불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철저히 징수하고 앞으로 현지 교육부에 신학대학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학교 주변 교회들을 방문해 말씀도 전하면서 학교 선전도 겸하고 있는데, 더 많은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주변 교회들 담임 목사와 교섭이 순조롭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주실 것은 개교때부터 재정을 전담하던 '상파울 선교 교회'가 어려움으로 작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데, 다시 지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브라질 CAL 세미나가 오랜만에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통산 117기, 브라질 6기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한국에서 오정현 목사를 비롯해 세미나팀들이 내방하여 상파울 시내에 있는 Pinheiros 장로 교회당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번 세미나에는 브라질 목회자 400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대회를 앞장 서 추진한 브라질 Agua Viva 교회, 담임 고영규 목사는 "앞으로 Africa에서도 이런 세미나가 개최될 수 있는 꿈을 갖고 있다"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씀을 매일 3 번 이상 외치면서 살아 갈수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벧전 2:9) (참조: www.abrako.com)

[기도 제목]

- 1)설립된 신학교들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 인재들'을 많이 허락하소서.
- 2)선교사로 헌신하려는 Ana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게 하소서.
- 3)Africa의 MK 학교, Academia Abrko의 건축 공사가 완공까지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 주소서.
- 4)아직도 창궐중에 있는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의 질병들이 빨리 회복되게 해 주소서
- 5)파송 교회, 후원 교회, 후원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 내려 주소서. (아래 사진 있음)



Bissau, MK 학교 건축, 현재 모습.



신학교, MK 학교 완공후 모습
(뒤는 완공된 신학교 건물, 그 뒤는 주차장 및 운동장)



Bissau, M.K. 학교 완공 후 모습